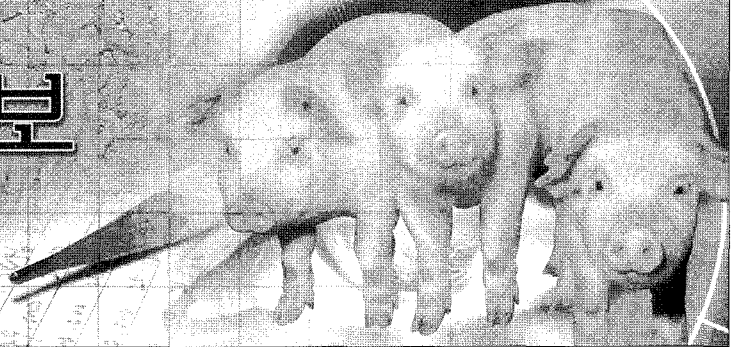


축산정보



유해사료 범위 및 기준 대폭 강화

- 사료내 혼합 가능 동물용의약품 감축 및 유해물질 관리 강화

농림부는 12월 10일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사료내 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종류를 감축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공포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료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개정해 고시했으며, 2005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사료 제조시 혼합이 가능한 동물용의약품의 종류를 현행 53종에서 나라신, 디클라주릴, 라살로시드나트륨, 마두라마이신암모늄, 모넨신나트륨, 바시트라신아연, 바시트라신메칠렌디살리실레이트, 밤버마이신, 버지니아마이신, 살리노마이신, 샘두라마이신, 설파치아졸, 아빌라마이신, 아프라마이신, 엔라마이신, 염산리코마이신, 옥시테트라사이클린 4급 암모늄염, 클로르테트라사이클린, 클로피돌, 타이로신, 티아무린, 페니실린, 펜벤다졸, 황산네오마이신, 황산콜리

스틴 등 25종으로 감축하고, 사료 제조시 규제 대상인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종류를 현행 납, 수은 등 8종에서 곰팡이독소인 비소, 불소, 크롬, 납, 수은, 카드뮴, 아플라톡신 B1, B2, G1, G2, 셀레늄, 오클라톡신 A 등 12종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관리대상 잔류농약 종류도 다이아지논, DDT 등 현행 17종에서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등 27종으로 확대했다.

농림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대책 마련

농림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지난 4~9월 축산분뇨 관리·이용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대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11월 25일(목)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각 시도, 본회, 농협 등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각 관련기관별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을 전달했다.

또한 농림부와 농진청은 12월 자원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양분총량제와 관련해 농진청은 2005년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농림부는 '06년 농진청과 본회의 협조 아래 양분총량제 시행지침

을 마련키로 했다.

주요 일정에 따르면 '04년에는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고액분리 시범사업, 유기질비료 가격 보조 확대, 친환경농업 대상 지정 등을 추진, '05년도에는 친환경축사 시범사업,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관리 매뉴얼 작성 및 보급, 배출원 단위 및 가축단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어 농림부는 '05~'06년에는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개발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축산업등록제 정착 위해 농가에 적극 협조 요청

농림부는 선진축산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제도로 축산업등록제 정착을 위해 농가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축산업등록제는 방역관련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질병 발생시 신속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 선진축산으로 변화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일부 농가가 등록시 부담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업의 경우 별도의 시설

및 장비기준 없이 축사면적, 사육두 수 등을 현재상태 그대로 등록하면 되므로 농가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채택해 무허가 축산농가도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축산정책은 원칙적으로 등록농가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 축사건폐율 상향조정 시·군에 협조요청

축사 건폐율의 상향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설교통부는 시·도 등 해당 지자체에 건폐율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지역실정 등을 감안해 조례 개정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본회가 농림부에 축사 건폐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농림부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함으로써 농림부가 이를 수용하고 건설교통부에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가 시·군에 건폐율 상향조정을 요청한 내용에 따르면 현행 건폐율을 20%로 운영중인 시 지역에서는 40% 수준까지 상향하고, 군 지역은 40~6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건교부는 건폐율 상향조정으로 적법요건을 갖추게 되는 무허가 축사는 추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즉각 도입 촉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유통을

농림부 축산국장에 '박현출' 씨



박현출 축산국장

농림부는 농림부 축산국장에 박현출 부이사관을 임명했다. 신임 박현출 축산국장은 56년 무안에서 태어나 목포고등학교와 단국대 법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1982년 농림부에 소속, 무역진흥과장, 협동조합과장, 유통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농업정보통계관을 거쳤다.

차단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도입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따라서 한농연은 국내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유도하는 촉매제로써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주장했으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배합사료 가격 5% 안팎 추가 인하

국내 배합사료 가격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농협사료가 12월 17일 평균 6% 정도의 가격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12월 15일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따르면 환율하락과 배합사료 주요 원료인 옥수수 등 곡물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11월 10일을 전후해 2~4% 인하한데 이어 12월 안으로 5% 안팎 수준으로 더 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에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는 5.5~5.6% 인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일사료(주)는 현재

생산중인 배합사료 원료는 가격이 내릴 때인 지난 10월께 구입한 것으로 사료값 인하요인이 발생해 5% 안팎으로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축방역 '지역 방역협의회'가 담당

- 농림부, '지역 방역협의회 구성·운영' 추진방향 시달

평상시 가축전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가축방역 전문가 및 농가대표와의 가축방역 정책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가축질병을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시·군 단위 방역협의회'가 구성된다.

지역 방역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1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맡는다. 회원은 지역축협조합장, 양돈농가 대표, 한우농가 대표, 젖소농가 대표, 양계농가 대표, 개업수의사 대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팀장, 방역관련 전문가, 경찰서·군부대 담당관 등이 소속, 간사는 축산·방역담당 과장이 맡게 된다. 지역 방역협의회는 가축전염

병 방역대책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기관·단체간 방역담당 등 역할분담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다.

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 의뢰기준(안) 공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안)'을 12월 7일 공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검사대상에 가축의 동물 등의 검사가 추가되며, 검사대상물별 검사신청서를 세분화해 명시했다.

2005년부터 프랑스산 종돈수입 개시

- 농림부, 프랑스산 돼지 및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안) 입안예고

2005년부터 프랑스산 종돈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12월 3일 프랑스산 돼지수입위생조건(안) 및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안)을 입안예고하고, 이와 관련 12월 23일까지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농림부는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돼지에 의한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산 돼지수입 위생조건(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돼지는 출생 이후 또는 선적전 6개월 이상 프랑스에서 사육되어야 하며, 선적전 1년간 구제역, 2년간 수포성 구내염·돼지수포병

및 선적전 3년간 우역·아프리카돈열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수입위생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이옥신 검출 연루 4개국 검역 중단 해제

농림부는 네덜란드 사료업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의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에 내렸던 수입검역 잠정 중단 조치를 12월 5일 해제했다.

농림부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프랑스 4개국의 돼지고기와 유가공품의 안전이 확인됨에 따라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네덜란드 매케인사의 사료가 수출용으로는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매케인사 사료에 대한 통관 잠정중단 조치도 해제했다.

10월 돈열 항체양성률 95.4% 기록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10월 돈열 항체양성률은 95.4%로 나타나 10월까지 누계 95.9%를 형성했으며, 2004년 1월이래 지난 8월 항체양성률 94.6%를 제외하고 꾸준히 양성률 95%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비육돈 농가 1천238호, 1만5천665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항체검사 결과 양성률이 94.8%를 기록해 지난 9월 96.7%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번식돈 농가 422호, 3천646두를 검사한 결과 97.8%를 기록해 9월 98.7%보다 감소했고, 자돈 농가 3호, 22두 검사결과

100%로 나타났다.

왕궁지역 돼지 오제스키병 빠른 시일내 근절 예상

전북 익산 왕궁지역의 돼지 오제스키병이 빠른 시일내에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는 지난 '04년 하반기까지 익산 왕궁단지의 일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정화 단계에 거의 왔다고 밝혔다.

방역본부는 2004년 하반기까지 왕궁지역의 175호 농가에서 모돈, 웅돈 전두수와 일부 육성비육돈을 포함해서 12,491두를 혈청검사한 결과 양성축 검색농가는 단지 4농가에 10두만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양성두수 비율은 0.09%로 극소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해지역 돼지 오제스키병 종식 국면 진입

경남도청 축산과는 본회와 방역당국, 농가가 방역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방역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중간 점검한 결과 현재 김해지역의 오제스키병이 종식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양성으로 판정된 돼지에 대한 도축장 출하조치와 양성판정 농가 소독 강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12월 들어 양성판정은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김해지역 오제스키병이 확산일로에 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산술적인 양성판정 현황만을 보도한 것으로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지적했다.

일본,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입 잠정 중단

- 제주도에서 돈열 예방주사 항체 확인

농림부는 돈열 청정지역으로 선포된 제주도 내 4개 농장에서 돈열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 사실을 11월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주도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입 검역을 예방접종 사실 등이 규명될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돈열 항체 발견은 제주도 가축방역 위생연구소에서 관내 양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돈열 혈청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개 종돈장에서 11월 23일 이상 항체가 확인됐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11월 25~28일 정밀검사를 한 결과 예방주사에 의해 생성된 항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양돈산업 '도약' 모색

- 제주 돈열 수습대책위 구성

제주도는 12월 13일 '위기수습을 위한 양돈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 내 농장에서 돈열 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나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 중단 등의 타격에 따른 것이다.

양돈대책협의회는 학계, 관련단체, 농가,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

되며, 대책위는 제주도 가축방역 정책대안 마련 및 제주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 재개,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등 제주도 양돈산업 도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04년 칠레산 돈육 수입 최고

- 11월 돼지고기 수입 8천324톤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물 수입검역통계 11월 하순 자료에 따르면 칠레산 돈육 수입이 1천635톤으로 지난 8월 이후 4개월 연속 최고 수입량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4년 돈육 수입국은 벨기에가 11월 현재 누계 1만5천464톤으로 '03년 누계 대비 17% 상승, 칠레가 1만5천892톤으로 전년누계대비 31.6% 증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11월 칠레산이 1천635톤으로 가장 높게 기록했으며, 벨기에산이 1천249톤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1월 하순 집계된 돼지고기 수입량은 8천324톤으로 10월 8천513톤보다 189톤 감소한 양이며, 11월까지 총 누계 수입물량은 9만7천698톤에 이르러 '03년 총 누계 6만790톤보다 3만6천908톤이나 증가했다.

북한, 2004년 돼지고기 수입 급증

2004년 9월까지 북한의 돼지고기 수입이 1억달러 여치를 넘어 북한의 돼지고기 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입수한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2004년 1~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1억1천74만달러로 전년동기 3천299만달러와 비교해 243% 증가했다. 한편 북한의 중국 돼지고기 수입액은 2000년까지 100만달러에 못 미쳤으나, 2001년 516만달러, 2002년 971만달러, 2003년 5천642만달러 등으로 이어졌다.

“돈열은 사람에게 전혀 해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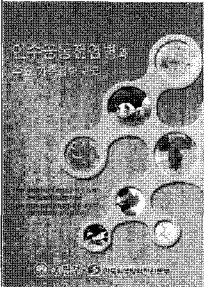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제주도 양돈장에서 돈열 예방주사 항체가 나타나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기피할 것으로 우려해, '돈열'은 사람에게 전혀 해가 없고 돼지에게만 전염되는 가축전염병임을 알리는 홍보물을 마련했다.

홍보물에서는 '돈열'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이고, '콜레라'는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법정 제1군 전염병이라고 구분하고 '돈열'과 '콜레라'가 다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질병관리” 매뉴얼 발행

농림부는 가축방역 종합대책 추진



과 관련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질병관리' 매뉴얼을 제작·발행했다.

농림부는 2000년 이후

구제역 및 돈열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빈발하고 최근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림부는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과 신종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해당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축산물의 소비위축과 관련산업의 도산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했다.

“항생제 바로 사용하기” 실마리 찾아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이라는 주제로 11월 24일(수) 그랜드힐튼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올바른 항생제 사용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럽 각국의 축산분야에서 행하는 안전한 항생

제 사용방안과 WHO의 국제 관리 전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법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회가 됐다.

친환경·유기축산 정책방안 정책세미나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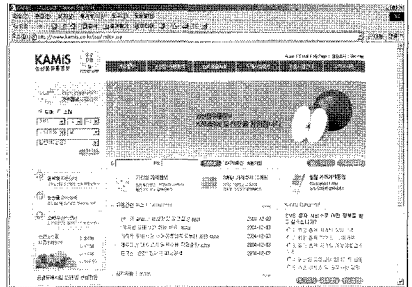
한국농어민신문사는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친환경·유기축산 정책방안 정책세미나'를 12월 1일(수) 서울 가락동 한농연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재용 과장은 '친환경·유기축산 정책, 이렇게 추진된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해 '03~'05년 유기축산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유기농업과 연계한 유기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강원대 사료생산학과 오상집 교수는 '국내 유기축산사료 생산과 해결과제'에 대해,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태근 회장은 '친환경 유기농업과 유기축산 연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농협중앙회 안성목장 김영현 차장은 '농협중앙회의 유기축산시범사업추진 사례'와 도드람 B&F 김대성 회장은 '유기축산사료 생산방안과 해결과제'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KAMIS 농·수·축산물 종합유통정보 제공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물유통정보 시스템(<http://www.kamis.co.kr>)은 농·수·축



산물의 도·소매가격정보 및 농산물 유통실태정보, 농산물 소비실태정보, 산지유통시설정보, 산지가공공장정보, 도매시장정보 등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AMIS는 도·소매가격정보의 경우 5일 이동평균값 및 평년가격을 적용한 3개년 가격추세 그래프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일일·월간·연간 가격을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 2005년도 사업계획 확정

농협중앙회는 11월 25일 열린 임시 대의원회에서 2005년도 매출 총 이익을 올해보다 8% 늘어난 4조20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2005년도 축산경제부문 사업 규모는 1조5535억원이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문을 내년도에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축산물 가공·판매사업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지향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의 생산유통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동**